

ACC창·제작 공연 '기언치, 봄' 첫 선

봄 향해 이어진 창작 흐름 지역 예술로 완성되다



clickart

지역 예술인과 협력해 만든 창·제작 공연이 ACC 무대에서 첫선을 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올해 첫 창·제작 공연 '기언치, 봄'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ACC 광주·전남 지역 예술인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겨울이 길어도 기어이 봄은 온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작품은 지난 해 봄 지역 예술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두 팀이 1년간 협업해 완성했다. 그 결과 현대무용 '혁-Hug'와 판소리 기반 음악극 '아파, 구보씨' 두 작품이 4-5월 무대에 오른다.

현대무용 '혁-Hug'는 들숨을 뜻하는 '혁'과 몸과 몸이 마주하는 인사 'Hug'를 결합한 제목으로, 전쟁과 재난 등 익숙해진 비극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감각을 풀어낸다.

무대 위 무용수의 움직임이 실시간 촬영해 투사하는 연출을 통해 현재와 과거, 미지의 시간이 겹쳐지는 장면을 구현하며, 의도와 우연이 교차하는 시각적 경험을 제시한다. 안무가와 무용수, 광주 지역 예술인 3명이 참여해 지역 창작 역량을 드러낸다.

판소리 기반 음악극 '아파, 구보씨'는 소설가

17-18일 현대무용 '혁-Hug'

24-25일 음악극 '아파, 구보씨'

구보 씨의 일일을 바탕으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1930년대 경성의 소설가 '구보'와 2020년대 서울의 작가 지망생 '구보람'이 라디오 전파를 통해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연결된다.

두 인물은 각자의 고독과 불안을 마주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일상의 대화와 위로가 흐르는 서사는 관객을 자연스럽게 시간의



'혁-Hug' 출연진



'아파, 구보씨' 출연진

흐름 속으로 이끈다.

여기에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인물의 감정과 공간을 입체적으로 채운다. 이 작품에는 ACC 판소리 연작 '두 개의 눈(2021)'에 참여한 소리꾼 김소진과 광주시립창극단 상임 단원 이서희가 출연해 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할 예정이다.

두 작품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와 협력해 광주 초연 이후 서울 공연으로 이어진다. 지역에서 제작된 작품이 다른 무대로 확장되며 더 많은 관객과 만나는 구조다. ACC는 앞

으로도 공공극장 간 협력을 바탕으로 창작 활동의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Hug'는 ACC 극장에서 17-18일, 대학로극장 퀴드에서는 5월8-9일 공연된다. '아파, 구보씨'는 ACC 극장에서 24-25일, 대학로극장 퀴드에서는 5월15-16일 무대에 오른다. 예매는 ACC 누리집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가능하다.

김상욱 전담장은 "이번 '기언치, 봄'을 시작으로 지역예술가와 극장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ACC가 창작과 관객을 연결하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인생 2악장 올리다'

광주모던색소폰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앙상블 선배

광주모던색소폰오케스트라가 오는 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창단연주회 '인생 2악장, 다시 피는 봄'을 선보인다.

이번 창단연주회는 각자의 삶을 살아온 이들이 음악을 통해 다시 출발하는 '인생 2막'의 의미를 담았다. 전문 연주자가 아닌 생활예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도 특징이다.

광주모던색소폰오케스트라는 2024년 12월 결성된 아마추어 단체로 변호사, 목사, 약사, 교원, 언론인, 가정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의 단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20대부터 8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단원들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정기 연습을 통해 호흡을 맞춰왔다.

이번 공연의 지휘와 음악감독은 황태룡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교수가 맡았다. 뉴욕에서 재즈오케스트라 작·편곡을 전공한 작곡가 최수희가 오케스트라 구성에 맞춘 편곡을 담당해 완성도를 더했다.

무대에는 30여 명의 단원이 참여해 앙상블을 선보인다. '보헤미안 랩소디', '오펜 리브스', '뉴욕 뉴욕', '아이 윌 올웨이즈 러브 유', '베사메 무초' 등 세계적인 명곡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 '목포의 눈물' 등 한국적 정서를 담은 곡도 연주된다.

색소폰 박수용, 플루트 김규향, 보컬 김은영이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하며 댄스스포츠 협연 무대로 마련돼 공연에 생동감을 더할 예정이다.

광주모던색소폰오케스트라는 신생 단체임에도 2025 고창군수배 전국색소폰앙상블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황태룡 음악감독은 "이번 공연은 완성도를 보여주기보다 각자의 삶을 지나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음악으로 나누는 자리"라며 "누구나 자신의 두 번째 계절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주회는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공연 문의는 010-4009-2224로 하면 된다. /최명진기자



지난해 색동회 광주전남지부 어른 동화구연 대회

동화로 전하는 사랑·희망... '제28회 어른 동화구연 대회'

(사)색동회 광주전남지부, 6월1-5일 접수

동화를 통해 사랑, 희망, 꿈을 전하며 서로 소통하고 상처를 위로 받는 장이 펼쳐진다.

(사)색동회 광주전남지부가 주최·주관하는 제28회 어른 동화구연 대회가 오는 6월22일 오전 10시 북구 일곡도서관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가 동화를 통해 입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다.

동화로 세대간 소통을 잇고 힘과 가족과 사

회 모두에게 올바른 독서와 동화 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가자들은 4분30초 내의 구연으로 동화 속 인물과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한다.

몸짓과 동작 4-5회를 포함시켜 구연체로 제작해야 한다.

심사는 내용, 화술, 태도와 반응 등 다양한 기준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6월1일부터 5일까지 색동회 광주전남지부 다음 카페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062-673-2015. /최명진기자

국립나주박물관, '소장품 100선' 글로벌 플랫폼 공개

'구글 아트 앤 컬처'서 무료관람

영산강 마한문화 디지털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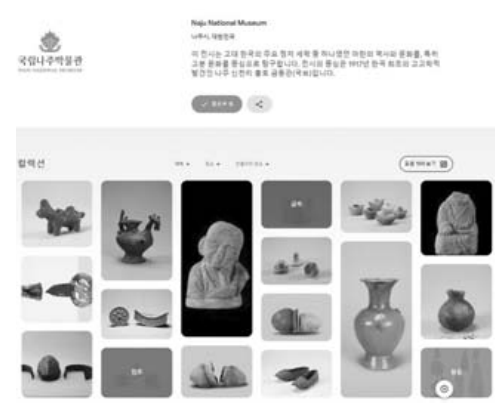
국립나주박물관이 소장 유물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며 지역 문화유산의 글로벌 확산에 나선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김상태)은 영산강 유역의 고대 마한문화를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도록 '소장품 100선' 정보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 주요 전시품은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에 수록된다.

이번 서비스는 물리적 거리로 인한 접근 한계를 온라인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에 머물던 문화유산을 세계와 연결해, 국제적 소통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되는 소장품은 생활문화와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장신구뿐 아니라 일상과 의례가 함께 담긴



유물을 통해,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의 다양성과 역사적 가치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국립나주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13개 기관 가운데 경주,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이번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최근 진행된 전시 개편이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고, 콘텐츠의 완성도와 독창성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디지털 전시는 구글 아트 앤 컬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p>시내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p>지방 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	--	---	---	---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